

건물의 스펙보다 중요한 건  
운영자들의 세심한 관리입니다  
좋은 설비도 결국 사람이 돌보기 때문입니다

**환경과 사람, 자연의 조화를 표현한 친환경 디자인**

- 건물의 외관은 기관이 추구하는 환경과 사람,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전문기관 이미지를 구현하였으며, 건축/토목, 인테리어 등에 사용된 대부분의 자재를 환경표지·저탄소인증, 녹색기술 제품과 같은 친환경 인증자재를 적용하였습니다.

**패시브 디자인**

- 리모델링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친환경기술과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수립되었습니다. 고성능 단열재와 창호 교체, 기밀테이프 적용, 2중 유리벽 커튼월 설치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녹색건축물 최우수등급, 에너지효율등급 1+등급 획득하였습니다.

**액티브 시스템으로 최적화**

- 리모델링 청사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액티브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전체 LED조명 교체와 지열시스템 설치를 통해 냉난방에너지를 절감하고, 청사 내 유휴부지와 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(279kwh)하여 에너지자립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 냉난방, 급탕, 조명시스템 등 에너지이용 설비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과 연계 관리되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작동되고 있으며, 전기, 가스 등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,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